

농식품부 '15년 예산 및 기금 14조 431억원 확정

▶ 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(2014. 12. 4)

▣ 국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**14조 43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.**

○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, '14년 예산과 대비하여 4,060억원(3.0%) 증가한 수준이다.

▣ **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외형적인 규모 조정뿐만 아니라,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보완되었다.**

○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(예방적→선별적)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,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**8개 사업에서 3,839억 원을 감액**하는 대신,
○ 쌀관세화,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,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·경영안정을 위해 **38개 사업에서 3,330억원을 추가 증액**하였다.

▣ 다만, 한중FTA에 대비하여 발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,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.

* 한중FTA 국내보완 대책은 발농업 직불금(1,929억원), 농기계임대(220억원), 원예시설현대화(1,468억원) 등 일부 선제적인 지원예산이 확보되었으며, 내년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'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

▣ 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의 '15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,

① **농식품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반영**

○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(127억원), 산지축산형농장(50억원) 등 농업생산과 가공·유통·관광 등을 연계한 **6차산업 활성화**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,

○ 농식품의 **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안 문제 해결**을 위해 ICT융복합(323억원), R&D(2,242억원), 생명산업(568억원) 등 농식품의 **新성장동력 확충**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

② **쌀관세화, 영연방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의 확대**

○ **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·경영안정**을 위해 **이모작 직불금의 단가인상(40만원/**

ha→50, +151억원),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인상 및 물량확대(3만원/3.3㎡→3.5, +535억원), 정책자금 금리인하(농기계구입자금 2.5%→2 등 131억원) 등을 추진하고,

* 금리인하 : 농기계구입자금('14년 3% → 정부안 2.5% → 최종 2%)귀농귀촌정착지원('14년 3% → 정부안 2.5% → 최종 2%)6차산업창업지원자금('14년 3% → 정부안 2.5% → 최종 2%)

-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(+5억원), 쌀소비활성화(+5억원), 고품질쌀유통활성화(+3.9억원), 농산물원산지관리(+4억원), 농기계임대(+10억원) 등에 지원하기로 하였다.

○ 영연방FTA에 대비하여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(+500억원), 축산자조금(+10억원), 축산경영종합자금(3%→2), 긴급경영안정자금(3%→1.8) 등 축산 관련 자금 금리인하(+43억원) 등을 추진하였다.

* 금리인하 : 축산경영종합자금('14년 3% → 정부안 3% → 최종 2%)
긴급경영안정자금('14년 3% → 정부안 3% → 최종 1.8%)

③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·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

○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(+190억원), 배수개선(+210억원), 대단위농업개발(+130억원), 다목적용수개발(+250억원)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 투자를 확대하였다.

○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가축방역(+38억원), 축사시설현대화(+1억원)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.

④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,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·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 확대

○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·채소·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,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(+801억원)하는 등 농업 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하였고,

○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·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(+2.1억원), 농기계등화장치 지원(+3억원)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다.

■ 농식품부는 확정된 '15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,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,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

참고 1

'15년 농식품부 예산 개요 및 주요 특징

1. '15년 예산 및 기금 개요

■ '15년 총지출 규모는 14조 431억원으로 '14년 대비 4,060억원(3.0%) 증가

○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6,087억원으로

'14년 대비 3.0% 증가

○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4,344억원으로

'14년 대비 2.9% 증가

▣ '15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(기금)안의 총 지출 규모는 19.3조원으로 '14년 대비 3.1% 증가

○ 국가전체총지출(375.4조원) 중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중은 5.1%,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중은 3.7%로 지난해보다 각각 0.2%, 0.1%p 하락

(단위 : 억원, %)

| 연도 | 국가전체 | 전년대비 | | 농식품 분야 | | 전년대비 | | 농식품 부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|
| | | 증가율 | 비중 | 증가율 | 비중 | 증가율 | 비중 | | |
| '10 | 2,928,000 | 2.9 | 172,571 | 2.4 | 5.9 | 146,738 | 0.3 | 5.0 | |
| '11 | 3,091,000 | 5.7 | 176,354 | 2.2 | 5.7 | 148,644 | 1.3 | 4.8 | |
| '12 | 3,254,000 | 5.3 | 181,322 | 2.8 | 5.6 | 154,083 | 3.7 | 4.7 | |
| '13 | 3,420,000 | 5.1 | 183,862 | 1.4 | 5.4 | 135,268 | △1.1 | 4.0 | |
| '14 | 3,558,000 | 4.0 | 187,334 | 1.9 | 5.3 | 136,371 | 0.8 | 3.8 | |
| '15안 | 3,754,000 | 5.5 | 193,000 | 3.1 | 5.1 | 140,431 | 3.0 | 3.7 | |

▣ 식품업(8.8), 농업생산기반조성(7.7), 농촌 개발·복지증진(6.7), 농가소득·경영안정(6.2), 양곡관리·농산물유통(1.1), 기타사업비(59.8) 등은 증가

* 수출대체 사업체계 전면 개편(5,110억원→5,867, +757)

** 쌀소득보전고정·변동직불(+710억원, +1,441), 농업재해보험(+152)

*** 농림축산검역본부이전(+376)

○ 반면, 농업체질강화(△3.9%)는 감소

*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(△1,000억원), 해외농업개발(웅자)(△160)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'14(A) | '15안(B) | 전년대비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
| | | | B-A | % |
| 총지출 | 136,371 | 140,431 | 4,060 | 3.0 |
| ◇ 사업비 | 132,881 | 136,860 | 3,979 | 3.0 |
| ▣ 농업·농촌 | 124,528 | 127,451 | 2,924 | 2.3 |
| ○ 농업체질강화 | 31,059 | 29,844 | △1,215 | △3.9 |
| ○ 농가소득·경영안정 | 23,230 | 24,663 | 1,432 | 6.2 |
| ○ 농촌복지증진 | 4,277 | 4,565 | 288 | 6.7 |
| ○ 농촌개발 | 12,172 | 12,664 | 492 | 4.0 |
| ○ 양곡관리·농산물유통 | 33,656 | 34,031 | 375 | 1.1 |
| ○ 농업생산기반조성 | 20,133 | 21,685 | 1,552 | 7.7 |
| ▣ 식품업 | 7,723 | 8,401 | 678 | 8.8 |
| ▣ 기타사업비 | 631 | 1,008 | 377 | 59.8 |
| ◇ 기본적경비 | 3,490 | 3,571 | 81 | 2.3 |

▣ 품목별로는 쌀산업(9.1%), 식품(8.8)은 증가한 반면, 축산*(△3.8), 공통 등 기타(△0.3%)는 감소**

*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(△1,000억원), 조사료생산기반확충(△214), 축산분뇨처리시설(△93)

** 한국농수산물대학이전(△799억원),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(+550)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'14(A) | '15안(B) | 전년대비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
| | | | B-A | % |
| 총지출 | 136,371 | 140,431 | 4,060 | 3.0 |
| ○ 쌀산업 | 48,629 | 53,060 | 4,431 | 9.1 |
| ○ 원예·특작 | 21,539 | 21,555 | 16 | 0.1 |
| ○ 축산 | 15,162 | 14,589 | △574 | △3.8 |
| ○ 식품 | 7,723 | 8,401 | 678 | 8.8 |
| ○ 공통 등 기타 | 43,317 | 42,826 | △491 | △0.3 |

2. 2015년 중점 편성내용

<편성방향>

▣ “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”하고 우리 “농업의 미래산업화” 기반을 구축하기

위한 예산 투자 확대

-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집중
 - 농촌의 부존자원과 2·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, ICT융복합·R&D·종자산업 등 농식품분야 新성장동력 확충 등
- 쌀관세화,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되,
 - 영세·고령농을 위해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,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확대에도 재정투자를 강화
- 또한, 가축질병,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의 예산지원 강화

〈'15년 예산의 주요 특징〉

- ①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 (7,240억원 → 7,705, 증 6.4%)
 - 농업생산과 가공·유통·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관련 투자 확대 (788억원→868)
 - 농촌융복합산업 : 농촌의 부존자원과 2·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(57억원→127)
 - * 6차산업화 지구(지역특화형 6차산업 모델 구축, 3개소·1년 10억→6·3년 15억), 지역컨소시엄(6차산업 주체간 연대·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, 10개소→20) 등
 - 산지축산형농장 : 산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,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, 체험관광 접목 등 산지축산 적용 모델 구축·확산(13억원→50)
 - ICT 융복합(321억원→323), R&D(2,055

- 억원→2,242), 생명산업(562억원→568) 등 농식품분야의 新성장동력 적극 확충
 - 농식품 분야의 생산·유통·소비 등의 단계에 ICT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(19억원→31), 농지종합정보화(16→18) 등
 - 첨단생산기술개발(210억원→225), Golden Seed 프로젝트(221→227), 수출전략기술개발(160→172),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(376→383) 등
 -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(95억원→93), 생명산업기술개발(467→475) 등

② 쌀관세화,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(3조 4,631억원 → 3조 6,180, 증 6.2%)

-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
 - 소득보전 : 쌀고정직불(90만원/ha→100, 7,740억원→8,450), 유기지속직불(신규, 59억원), 농어업인 연금보험료(기준소득금액 85만원→91, 1,403→1,638) 등
 - 경쟁력강화 : 쌀소비활성화(40억원→60), 들녘경영체 육성(25→45), 쌀산업선도경영체 교육훈련(신규, 11억원),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(농기계구입자금 3%→2.5, 농업경영회생자금 3%→1 등) 등
- 영연방 FTA를 대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지원(1조 1,656억원→1조 1,301)
 - * '15년 예산은 기존계획대비 2,313억원 증액(지원 규모로는 2,577억원 증액)
 - 축산물이력제 : 소·돼지 사육단계부터 도축·포장·판매과정까지 이력정보를 기록·관리(182억원→223)

-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지원 : 육성우목장 운영, 국내산 조사료이용 등 생산비 절감 노력 평가 후 우수조합 지원(신규, 100억원)

※ 참고 : 영연방 FTA 대책 재원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,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(5,000억원→4,000, △1,000)감액에 따른 것으로,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(6,656억원→7,801)

○ **농식품 수출확대**를 위한 시장개척, 물류비, 원료구매자금, 해외정보 제공, 제2파프리카 육성 등 지원 강화(5,110억원→5,867)

- **신선농산물** 수출업체 지원 :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자금 융자, 수출 전문인력육성, 운송·검역·통관지원 등 (3,070억원→3,534)

- **가공식품** 수출업체 지원 : 가공식품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·시설현대화자금 융자, 맞춤형 상품개발, 운송·검역·통관지원 등(1,711억원→1,959)

- **제2파프리카육성** :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(인삼, 버섯, 화훼, 유자차, 유제품)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생산·상품화·마케팅 등 지원(신규, 15억원)

③ **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·안정을 위한** 지원 강화(2조 1,406억원 → 2조 2,237, 증4.5%)

○ **재해예방**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, 용수개발 등 **생산기반 정비사업** 투자 확대(1조 2,653억원→1조 4,225)

* 다목적농촌용수개발(2,600억원→3,050), 수리시설 개보수(4,800→5,487), 배수개선(2,900→3,160),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(163→263) 등

○ 가뭄·폭염·태풍 등 **빈발하는 자연재해**에

대비한 농업재해보험,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영농 안전장치 강화(5,504억원→5,749)

- **농업재해보험** :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완화(2,701억원→2,853)

* 품목확대(59개→62, 시설무, 백합, 카네이션 추가), 종합위험방식확대(배·단감→배·단감·사과), 수입보장보험(신규, 양파·포도·콩, 32억원)

* 종합위험방식 : 특정위험(태풍, 우박, 봄동상해)에서 모든 자연재해, 조수해 및 화재까지 보장하는 방식

* 수입보장보험 : 농작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(收入)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보험

- **농업인안전재해보험** :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(397억원→490)

* 농업인재해보험 90만명→110, 농기계종합보험 4.2만대→4.6 확대 등

○ AI 등 **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** 종식을 위한 지원 확대(1,201억원→2,334)

- **가축질병대응기술** : 구제역,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·검역·진단 등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(37억원→58)

- **시도가축방역** :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, 방역·소독차량 구입, 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인력 육성 등(770억원→1,038)

④ **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** (3조 7,785억원 → 3조 9,140, 증3.6%)

○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**직불제 확충**(1조 2,924억원→1조 6,396)

- * 쌀고정직불금(90만원/ha→100, 7,740억원→8,450)
- * 변동직불금(쌀목표가격 188,000원 적용으로 대폭 확대, 200→1,641)
- * 밭농업직불(지목 및 품목확대 : 지목상 밭 · 26개 품목→사실상 밭 · 전품목, 논이모작직불 40만원/ha→50, 1,347억원→1,929)
- * 유기지속직불(유기인증 5년간 전환 직불금→6년차 이후 1~5년차 지원액의 50% 수준으로 3년간 지급)
-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(3,213억원→2,826)
 - * 금리인하 : 농업경영회생자금(3%→1), 농기계구입 자금, 조사료생산기반확충, 가축분뇨처리시설, 귀농귀촌활성화, 6차산업창업(3%→2), 축산1%자금 확대(3%→1) 등 농식품부 관련 정책자금 14개 금리인하
 - ※ 참고 :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인 지원은 확대되나,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기준금리 인하(4.90%→4.33)에 따라 예산규모는 감액
- **농지연금** 확대(339억원→394)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
 - * 제도개선 : 담보농지평가(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), 가입비 폐지, 가입연령 완화(부부 모두 65세 이상 → 가입자만 65세 이상)

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**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** (4,277억원 → 4,565, 증 6.7%)

- 농어업인 **건강·연금보험료** 확대(3,241억원→3,367), 고령·사고 농가 등에 **가사 및 영농도우미** 지원(76→84) 등
 - * 연금보험 : 지원인원 확대(291천명→311),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지원한도액 상향(38,250원→40,950, 증 2,700원)

- * 가사 : (고령·취약) 15천가구, 12천원, 12일 / 영농 : (사고·질병) 17천가구, 60천원, 10일
-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**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**(42억원→42),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확대(21→24)
 - * 공동이용시설 : 공동생활홈 35개소, 공동급식시설 18개소, 작은목욕탕 16개소

⑥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 (7,723억원 → 8,401, 증 8.8%)

- 거점단지 조성, 기초 인프라 확충, 외식산업 육성 등 **식품산업 진흥** 투자 확대(3,374억원→3,437)
 - 전통발효식품 : 장류, 전통주 등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세계화 추진(78억원→125)
 - 식품기능성평가 : 국내 농식품 성분에 대한 기능성 평가지원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(25억원→27)
 - 식품인력양성 : 식품산업 교육인프라 구축, 창업교육을 통한 유망 일자리 창출 지원(신규, 17억원)
-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,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·정보 지원과 같은 **新소비자 정책 추진**(66억원→67)

⑦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·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(1조 5,840억원 → 1조 6,216, 증 2.4%)

- **주요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**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 대응

능력 강화

- 산지유통종합자금 : 산지유통조직에 원물 확보, 계약재배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규모화·전문화 유도, 수급조절·물가안정 도모(5,500억원→6,480)

* 계약재배 물량 : (*14) 18% → (*15안) 22

- **농산물 직거래 지원**(121억원→122) 등 新유통경로 확충,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**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**(420억원→470) 등 유통시스템 혁신 지원

* 정가수의매매 : 거래단위 규모화 및 경매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경매대신 미리 가격을 정하고 거래(정가)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(수의)하는 방법

- ⑨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 (1조 5,162억원 → 1조 4,589, △3.8%)

- FTA 대응 국내보완대책을 **효율적으로 추진**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**내실있는 지원 대책 마련**

- (정부정책자금 융자금리 인하)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(3%→1.8), 축산경영종합자금(3%→2), 긴급경영안정자금(3%→1.8)

- (경쟁력 제고를 위한 **신규사업 추진**) 한우 직거래활성화지원(120억원),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 지원(100억원) 등

- **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등 가축방역 강화** (2,615억원→3,044)

- 시도가축방역(770→1,038), 가축위생방역지원(331→397), 도축검사원운영(46→76), 가축방역(114→152), 구제역백신연구센터건립(63→153)

* 거점 소독·세척 시설(49억원), 가금농가 질병관리

(30), 가금류 랜더링처리시설 보완(18),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(68), 방역정보 DB 현행화(43) 등 신규지원

※ 축산업 분야 전체 재원은 감액되었으나, 축산 단체 요구 및 여야정 합의를 반영하여 정책자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(5,000억원→4,000, △1,000)감액에 따른 것으로,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(1조 325억원→1조 759)

- ⑩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**신규사업 적극 발굴·반영**(9개 사업 - 458억원, 내역사업 - 632억원)

○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인 **제2파프리카**(인삼, 버섯, 화훼, 유자차, 유제품) 집중 육성 지원(15억원)

○ 농가의 품목별 수입(收入)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**가격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** 도입(32억원)

○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랙터, 경운기 등 농기계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**농기계 등화장치 지원**(12억원)

○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, 상담·멘토링, 교육지원 등 one-stop **종합지원센터 운영**(10억원)

○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의 거주지·영농기반 마련,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**입시 주거지 조성**(11억원)

○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**응급처치 전문교육** 실시(2억원)

○ **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**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(17억원)